

■ 주요 기사

○ KEB하나은행 노조 통합(4건)

| | |
|-----|---|
| 조선 | 하나·외환은행, 합병 1년만에 勞組 통합 |
| 중앙 | [경제 브리핑] KEB하나은행 노조도 내년 1월 통합 |
| 한경 | 통합 1년 만에...노조도 '하나'되는 KEB하나은행 |
| 한겨레 | 하나-외환은행 노조...합병 1년 만에 통합 |

○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연구 관련(2건)

| | |
|----|---|
| 조선 | "금융위기 후 한국경제, 노동집약적 성장... 혁신은 없었다 |
| 매경 | 한국경제 '노동집약형' 성장...혁신은 없었다 |

■ 주요 칼럼 · 사실

○ 근로고용 문화 관련(2건)

| | |
|----|---|
| 한경 | [전문가 포럼] 건강한 기업을 만들려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 |
| | [Global View] 직원 평생교육 회사가 말아라 |

○ 대기업 노조 관련(1건)

| | |
|----|---|
| 한경 | [취재수첩] 수주절벽에도 임금 더 달라는 현대중공업 노조 |
|----|---|

○ 산재보험료 관련(1건)

| | |
|----|---|
| 경향 | [사설] 재벌에 집중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|
|----|---|

■ 언론별 동향

| 매체명 | 주 제 | 내 용 | |
|-------|-------|---|--|
| 조선 | 노동 | 제목 | "금융위기 후 한국경제, 노동집약적 성장... 혁신은 없었다 A8면 |
| | | 내용 | 산업연구원에 따르면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은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, 기술 개발 등 혁신성과의 기여도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 |
| | 노동 | 제목 | 하나·외환은행, 합병 1년만에 勞組 통합 B2면 |
| | | 내용 | 하나·외환은행 노조는 합병 이후에도 별도 지부를 유지하며 교섭권을 갖고 있었으나, 조합원 임금·복지 등 차별을 해소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등과 관련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조를 통합 |
| 고용 복지 | 제목 | 日, 돈버는 노인 730만명... 65~69세 남성 절반은 '현역' A20면 | |
| | 내용 | 일본 총무성 인구조사에 따르면, 우선 일해서 돈 버는 노인이 730만명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. 특히 65~69세 연령층은 남성들 중 하나(52.2%), 여성 셋 중 하나(31.6%)가 '현직'으로 나타남 | |
| 중앙 | 노동 | 제목 | [경제 브리핑] KEB하나은행 노조도 내년 1월 통합 E6면 |
| | | 내용 | KEB하나은행의 하나노조와 외환노조가 통합. 지난해 9월 하나·외환은행이 통합해 KEB하나은행이 출범한 지 1년여 만 |
| 동아 | 환경 | 제목 | "환경부, 車 교체 명령 내려라" 폴크스바겐 차주들 20일 憲訴 B6면 |
| | | 내용 |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(디젤게이트)과 관련해 해당 차량을 보유한 차주들이 정부에 '자동차 교체 명령'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|
| 매경 | 노동 | 제목 | 한국경제 '노동집약형' 성장...혁신은 없었다 A10면 |
| | | 내용 |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에는 노동투입 증가가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IT 등과 혁신 성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 |
| | 고용 복지 | 제목 | 주4일 근무제 도입의 明暗 A10면 |
| | | 내용 | 국내외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'주4일 근무제'는 회사 재무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옴 |

| 매체명 | 주 제 | 내 용 | | |
|-----|-------|-----|--|--|
| 한경 | 노동 | 제목 | 통합 1년 만에...노조도 '하나'되는 KEB하나은행 10면 | |
| | | 내용 | 작년 9월 하나·외환은행이 합병한 이후에도 둘로 쪼개져 있던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. 조합원 투표 등을 거쳐 내년 1월 통합 노조가 출범한다. | |
| | | 제목 | 조선업 불황에도 울산 임금 전국 1위 10면 | |
| | | 내용 | 고용노동부가 2016년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, 조선업 구조조정에도 울산 지역 월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| |
| | | 제목 | [전문가 포럼] 건강한 기업을 만들려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 33면 | |
| | | 내용 |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, 결론 없는 회의·형식적 보고·잡은 야근 등 한국형 일하는 방식이 조직 건강 해치고 있어, 리더가 의지 갖고 관행 타파 모습 보여야 함 | |
| | | 제목 | [Global View] 직원 평생교육 회사가 말아라 34면 | |
| | | 내용 | 미겔 M. 루시오 영국 맨체스터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, 직원 교육의 방법을 바꾸는 일은 정부와 기업, 노동자가 광범위한 정치적 계약을 맺어야 가능. 기업과 노동자가 이런 교육 이슈에 대해 소통·참여하는 고용관계 문화 정립 필요 | |
| 한겨레 | 노동 | 제목 | 하나-외환은행 노조...합병 1년 만에 통합 18면 | |
| | | 내용 | 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“양쪽 직원이 혼재되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노조로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돌보면서 성과연봉제 등 큰 과제에까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”이라고 밝힘 | |
| | 고용 복지 | 제목 | 29살? 39살? 대한민국 '청년'은 몇 살까지입니까 10면 | |
| | | 내용 | 취업난에 한참 길어진 이행기. 각종 청년지원제도 늘면서 청년 연령기준 갈수록 아리송. 위헌소송 등 민감한 반응도 | |
| | | 제목 | '노인은 65살부터' 등식도 흔들 10면 | |
| | | 내용 | 독일은 비스마르크시대에 정한 노인 기준을 '고령사회'를 맞아 70살로 상향하는 움직임. 정년 및 국민연금 수급연령 고려해야 함 | |
| | 경향 | 노동 | 제목 | 불법파견 '특별근로감독' 대선공약에도 뒷집만 진 노동부 A10면 |
| | | | 내용 | 박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은 8곳이나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곳은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한전KPS 등 2곳에 불과 |
| 제목 | | | [사설]재벌에 집중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A31면 | |
| 내용 | | | 개별실적요율제는 재벌에 혜택을 몰아주고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대신 부담을 지는 구조. 이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으며 즉각 개선책을 찾아야 함 | |

<끝>